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une 17, 2022 Vol. 817

## 제41차 SBC 한인 총회 “교회, 다시 도약하자”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제41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기념 촬영 ©기독일보

제41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6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모든 것의 중심되신 예수”라는 주제로 남가주 LA 코리안타운에 소재한 새누리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과거 미주 남침례회 한

인교회 총회가 지향했던 것처럼 올해도 축제와 선교 집회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며 선교지향적인 교단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70명 선교사 파송과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5개년 계획인 “2026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소속 한인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올해 총회에는 한국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와 임원단이 방문해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첫날 코너스톤교회 찬양팀의 콘서트로 문을 연 총회는 본국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샌드 네트워크(Send Network) 총재 반스 피트 맥 목사, 게이트웨이 신학교 제프 로그 총장이 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신임 총회장으로는 이행보 목사(테네시주 내슈빌 연합침례교회)가 선출됐으며, 제1 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조낙현 목사가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이행보 목사는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라는 총회 비전을 따라 교회와 총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70명의 선교사와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2026 비전’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알립니다

미주 한인교회를 비롯한 한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왔던 미주 기독일보가 이제 더욱 많은 LA의 독자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와 조선일보LA와의 협력으로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자 조선일보LA가 배포되는 곳에는 미주 기독일보도 함께 전달됩니다.

미주 기독일보와 조선일보LA와의 이 같은 협력은 독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특히 교계 소식에 목말라 하는 한인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협력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미주 기독일보는 더욱 다양하고 핵심적인 기독교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美 UMC 지도자 60명, 감리교 정체성 강조한 선언문 발표

미국연합감리회(UMC)가 동성애 문제로 분열에 직면한 가운데, 60명 이상의 신학자, 교수, 성직자들로 구성된 그룹이 감리교 운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신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 번 전달된 신앙: 한 웨슬리안 증인”(The Faith Once Delivered: A Wesleyan Witness)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은 최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넥스트 메소디즘 서밋’(Next Methodist Summit)에서 나왔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이름을 딴 문서는 서문에서 “감리교의 신학적 계보를 다음 세기 이상으

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웨슬리안 운동의 특별한 선물에 대한 견고한 확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서는 여섯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창조된 형상에, 세 번째는 성경과 그 권위에, 네 번째는 구원의 본질에, 다섯 번째는 교회에, 마지막의 대부분은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일러대학교 조지 W. 트루렛 신학대학원의 웨슬리하우스 연구 책임이자 텍사스 와코 제일



2018년 11월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위치한 벨연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웨슬리안연합회의의 글로벌 회의 모습. ©웨슬리안연합회

감리교회의 제자훈련을 맡은 케빈 왓슨(Kevin Watson) 목사는 이 문서의 보조 편집자로 섬겼다.

왓슨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웨슬리

안-감리교 전통이 그 교리적 유산의 풍요로움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1월 문서 수집과 제작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UMC 텍사스 연례회의의 책임

자인 스콧 존스(Scott Jones) 감독은 지난 1월 모임에서 실무 그룹 중 하나를 맡아 문서의 초안을 검토했다.

존스 감독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웨슬리안 기독교의 대담한 미래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운동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문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감리교단인 UMC가 동성애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논쟁으로 분열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 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중교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셔!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내이민사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역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령기 협의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 월드미션대와 미주장신대, 한국기독교코칭학회 협력 '기독교 코칭 석사 과정' 개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이하 WMU)와 미주장로 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가 한국기독교 코칭학회(학회장 박중호 목사 이하 KCCA)와 협약을 맺고 오는 가을부터 기독교 코칭학 석사과정을 개설한다.

WMU와 미주장신대는 ATS(북미신학대학협의회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인가 신학교로 이번에 WMU는 MA in Leadership & Coaching, 미주 장신대는 M.A.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을 개설한다.

WMU와 미주장신대의 기독교 코칭학 석사과정 강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미주 전 지역을 비롯해,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입학과 수강이 가능하다.

기독교 코칭학 석사 과정은 성서와 코칭, 크리스천 가족 코칭,



지난 7일 월드미션대에서 열린 월드미션대, 미주장신대, 한국기독교코칭학회 업무 협약 기자간담회. 좌부터 한국기독교코칭학회 오규훈 학술원장,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 한국기독교코칭학회 학회장 박중호 목사 ©기독교일보

감성 리더십 코칭 스킬, 정체성과 크리스천 코칭, 크리스천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의 실제, 트리니티 영성 리더십, 영성 코칭과 경건, 기독교 상담과 코

칭, 마케팅 PR기반 비즈니스 개발과 파트너십, 선교와 크리스천 코칭, 코칭 수퍼비전 등 모두 36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WMU와 미주장신대 코칭

석사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는 석사 학위와 함께 IAC(International Associate Coach), IPC(International Professional Coach) 인증 시험 응

시 자격이 부여된다. 졸업 후에는 비즈니스 코칭, 영성 코칭 등으로 기독교 관련 기관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WMU와 미주장신대, KCCA 세 기관은 미국에 국제 크리스천 코칭연맹(ICCA, International Christian Coaching Association)을 설립해 세계적인 크리스천 전문코치를 양성하는 교육·인증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더불어 미주 지역에 기독교 코칭 분야를 소개하고 미주 기독교계에 코칭 문화를 홍보, 확산에 대한 협력할 방침이다.

자세한 입학 안내는 월드미션대 최윤정 교수(wmuinfo@wmu.edu), 미주장신대 교무처장 김루빈 교수(rbkim@ptsa.edu)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나성영락교회 LA한인회에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 5만 달러 기탁



왼쪽부터 나성영락교회 박주동 장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조계문 장로 ©LA한인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에 5만 달러의 성금을 기탁했다.

박은성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교인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행민들로,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겪는 안타까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해오는 뉴스에서 보이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힘겹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팠는데, 2주 만에 이렇게 큰 기금이 모여 그분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성영락교회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구호 기금 10만 달러를 LA한인회에 전달했으며, 2021년에도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LA 한인들을 돕는데 사용해달라며 LA한인회를 통해 5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LA한인회는 30여 LA한인단체들과 우크라이나 내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성영락교회의 5만 달러 기금이 더해져 현재 총 18만 1천 270달러가 모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욱 기자

## 갈릴리선교교회 "영혼 구원해 제자 삼고, 세계선교 이루는 공동체 될 것"

갈릴리선교교회(담임 한천영 목사 3721 Marmion way LA CA 90065)가 지난 5일 새성전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갈릴리선교교회가 새로 이전한 교회는 LA 다운타운 북쪽, 약 2만 스퀘어피트(560평) 규모의 예배당으로, LA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이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파사데나, 글렌데일, 라크라센타 등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한천영 목사는 "새성전 이전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새시대 새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며 "갈릴리선교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목사는 "갈릴리선교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2천년 전, 갈릴리 지역을 거니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



갈릴리선교교회 성전이전 및 봉헌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 ©기독교일보

아 세계선교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예배는 한천영 목사의 사회로 김종호 목사(예향교회)가 기도했으며, 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윤석형 목사(산샘교회)가 "교회는 희망입니다"(왕하25:27-3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석형 목사는 여호야긴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고작 3개월의 왕위에서 내려와 37년 동안의 포로로 살던 그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을 주신다"면서 "여호야긴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저자를 통해서 전해진 희망이 오늘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또 이 교회와 나라에도 동일한 희망이 전해질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복 목사(연합선교교회, 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와 정영민 목사(포도원교회)가 축사를, 이상훈 목사(미주성결대학교 총장)와 이수관 목사(휴스턴서울교회)가 영상축전을 전했다. 김현진 기자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b>원서접수</b>	2022년 11월 1일 마감
<b>지원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li> <li>-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li> <li>-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li> </ul>
<b>수업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차: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li> <li>- 2년차: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li> <li>- 3년차: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li> </ul>
<b>수업장소</b>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 창립 8주년, LA씨티교회 새로운 임직자와 힘찬 발돋움

LA씨티교회(담임 씨니김 목사 741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05)는 지난 5일 설립 8주년을 맞아 임직예배를 드리고 5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지근옥 집사가 시무장로로, 마이클문 집사는 명예장로로 제인문, 재클린조, 지미정 집사가 권사로 임직했다.

이날 예배는 씨니김 목사의 인도로 김현진 목사가 기도한 후, 김재연 목사(전 칼빈대학교 총장)가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막 3:13-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재연 목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일하시기를 원

하셔서 천국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시고 함께 하신다”며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난 뒤 변화되어 온 수가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사용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권면했다.

임직자 및 교우 권면에는 이아모스 목사(중부교회협의회 증경 총회장), 축사에는 성동현 목사, 코이노니아 기도에는 김영진 선교사(라오스)가 각각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씨니김 목사는 “LA씨티교회는 월서와 크렌셔의 LA한인타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며 “우리 교회가 ‘마음을 만지는 사



8주년을 맞은 LA씨티교회 ©김현진 기자

진강의’ 등의 문화강좌와 전시회, 사진테라피, 음식테라피, 일

터선교사훈련 등의 사역을 통해 문화 선교와 힐링 사역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현진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2022 학위수여식, 학부·대학원 99명 졸업생 배출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4일, 남가주재누리교회에서 제31회 학위수여식 갖고 학부 졸업생 48명, 대학원 졸업생 51명 등 총 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열렸던 졸업식이 올해는 현장 대면 졸업식으로 진행됐고, 현장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미국 각 지역 등에서 모두 51명이 참석

해 졸업의 기쁨과 감격을 만끽했다. 또 백혈병 투병 중에도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에르난데스 씨가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올해 학위 수여식에는 라틴프로그래밍 학생 21명이 학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사회복지학과와 예배학과, 글로벌리더십학과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경사도 있었다. 또한 전세계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세계화를 향한 학교

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이 돋보였다.

총장 메시지를 전한 임성진 박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목회 현장도 바뀌었고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달라졌다. 우리 사역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얻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받는 사역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김동욱 기자

## 설립 3주년 좋은비전교회 헌당 “오직 하나님의 은혜”



좋은비전교회 헌당 감사 예배 마지막 순서로 합심 기도하는 좋은비전교회 교인들 ©기독교일보

좋은비전교회(담임 최준우 목사)는 지난 5일, 교회 설립 3주년 및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

좋은비전교회(1601 West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는 하나로커뮤니티교회와 엠마오장로교회가 통합되어 2019년 6월 설립됐다. 좋은비전교회는 설립한 달 후,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라하브라 루터교회 예배당 구입을 마쳤다.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헌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나로커뮤니티교회와 엠마오장로교회는 라벤테 지역에 소재한 교회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위치했던 이웃교회였다. 두 교회는 동역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통합했다.

최준우 목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비전을 굳게 붙들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장신대 명예교수), 이윤희교수(에스디대학교), 송정영목사(복음선교대 공과교과), 권준목사(중앙리서주교회), 신정민목사(동원대 대학원), 유관지목사(동원대학교), 김인성목사(KCC공과대교과)

박성원 목사 책의 편지자

책의 제목: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은 복음의 자적인 스토리와 지라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라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울림이다.

\* 책크로마: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무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2022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 Grace Mission University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TRACS 인가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b>학위과정</b>	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b>특혜</b>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이벤트 1. 교육학 철학박사과정-장학금**  
TRACS 학위 인가 기념으로 2022년 가을학기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등록 신청시 20% 장학금을 추가 지급함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 doctoral@gm.edu

**이벤트 2.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6월 30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3. 화상입학설명회**  
6월 17일 오후 4시 Zoom  
7월 15일 오후 4시 Zoom  
Zoom 컨퍼런스ID: 648-961-5938 pw: 2020  
\*학교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학교홈페이지 GM.EDU에서 LiveChat으로 입학 상담 가능

Tel: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7**

■ 강태광목사의 문학 칼럼(1)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2022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2)”

며칠 전 필자와 오랜 친구들을 만났다. 미국에서 사귀 친구 중 바이올라 신학대학 출신들이 많다.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 교육자 등을 많이 배출한 것을 보면 그 학교는 명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우리는 먼저 가족들의 안부를 나누었다. 모두 자녀들이 출가했는데 가정마다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을 두고 있다. 한 친구는 만아들이 하와이의 한 교회의 청빙을 받아 EM 목회자로 바로 전날 떠났다. 두 부부가 공항에 배웅하면서 아들 내외와 손주와의 석별의 마음을 나눌 때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필자도 한 일 년 안에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딸 내외와 손녀를 배웅할 것이라 그 마음이 공감되었다. 모두가 목사들이고 한 친구는 목회자, 한 친구는 신학 교수 그리고 한 명은 선교사로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필자는 학생 때부터 시작하여 목회자로 살아갈 때까지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역을 하였다. 언제부터가 선교지를 나갈 때쯤이면 스스로 자문하는 물음들이 있었다.

내가 열방으로 다니며 선교한다고 하면서 가정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다. 어떤 면에선 스스로가 한 번 더 다짐하는 것일 수 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가? 를 자주 답문하는 편이다. 또 다른 물음 하나는 우리의 단기선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지 장기 선교사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교인가? 이다. 때로는 매우 심각하게 묵상하면서 단기선교에 임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과 말씀 앞에서 조율하려고 애쓴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 친구가 선교 이야기를 하다가 앤드류 머레이가 쓴 글 중에 “선교가 때로는 죄가 된다.”는 말을 했다. 앞뒤 없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가우뚱할 것이지 만 그 친구의 말이 의미하는 것을 필자는 공감했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잘못하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만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지 않는 선교를 할 때가 있음을 빗대는 말이다. 맞다. 수없이 선교지를 가고, 열정적인 사역으로 많은 일을 하는 듯 보이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가 있다. 사람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분열이나, 허영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없고 사람의 흔적만 남겨지게 될 때를 주의하라는 경각의 말씀을 공감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기회 될 때마다 선교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부터 섬기는 선교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선교의 올바른 목적과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 등을 일러 주려고 노력한다.

이번 단기선교팀 중에는 목회자 팀들이 있다. 그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아랍권 이슬람 나라로 가는 분들도 있다. 마음은 설레고,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나라로 가는 두려움과 자신이 과연 언어도 문화도 잘 모르는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등을 안고 간다. 필자도 지난 십여 년간 여러 번 다녔지만, 여전히 만날 영혼들에 대한 교차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은 그런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또한 나보다 먼저 현지에 가서서 영혼들을 준비시켜 두고 계시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나의 영적인기를 세워준다. 그렇게 선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가는 것이다.

### “나사로는 웃었다!” - 유진 오닐(Eugene Gladstone O' Neill)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많은 문학 작품 중에 저에게 최고 작품은 유진 오닐의 “나사로는 웃었다(Lazarus Laughed)!”라는 희극입니다. 유진 오닐은 평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 대부분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웃었다!”는 보기 드문 희극작품입니다. 막이 오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무덤에서 막 나온 나사로는 햇살이 눈부셔 우왕좌왕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세마포에서 풀려난 나사로는 웃기 시작합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닙니다. 그저 즐겁고 유쾌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신을 다시 살려준 예수님께 감사의 의미로 포옹을 합니다. 이어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옹해 주더니 놀란 얼굴로 둘러선 사람들을 하나씩 포옹해 줍니다. 사람들을 차례로 포옹해 주는 나사로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로 돌아갑니다. 베다니 온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나사로가 계속 웃고 있다는 것도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구경나온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죽어보니 어때요? 저 세상은 어때요? 죽은 다음 이야기를 좀 해 줘요!” 나사로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Portal)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사로는 예전처럼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늘 웃습니다. 나사로 집은 ‘웃음의 집(house of laughter)’이라는 별명을 얻고 베다니는 기쁨이 가득한 마을로 소문이 납니다.

나사로와 베다니 마을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집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찾아와 살펴봅니다. 늘 웃는 나사로가 못마땅했던 그들은 나사로를 시험합니다. 공연히 시비를 걸기도 하고 공연히 비난합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웃습니다.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사로는 웃었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웃는 나사로를 보면서 약이 오른 유대인들은 로마 관원에게 알립니다. 로마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 없이 웃으며 사는 나사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웃습니다. 급기야 나사로 집에는 파티 금지와 웃음 금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웃습니다. 나사로의 소문이 자주 퍼져 나가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 사람들은 나사로의 웃음을 싫어합니다.

연극 마지막은 로마 황제가 으리으리한 의자에 앉아 나사로를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과소한 웃음을 멈추거나 내 손에 죽는 것이다! 네가 선택하라!” 나사로가 여전히 밝은 미소로 대답합니다. “폐하여!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나사로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 로마 황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희극을 쓴 극작가 유진 오닐(Eugene Gladstone O'Neill)

은 현대 미국 연극의 아버지, 드라마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유진 오닐은 영미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19세기말 유랑극단 배우로 유명했던 제임스 오닐의 아들입니다. 그는 뉴욕 브로드웨이 한 호텔 방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호텔 방, 열차, 무대 뒤에서 성장했습니다.

유진 오닐은 1936년 노벨문학상과 네 번의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평선 너머 Beyond the Horizon>, <안나크리스티 Anna Christie>, <기묘한 막간극 Strange Interlude>, <아아! 황야 Ah! Wilderness>, <얼음장수 오다 The Iceman Cometh> (1946) 등의 걸작을 남겼고, 그의 사후에 출판된 <밤으로의 긴 여로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문학적인 업적은 대단하지만, 유진 오닐의 개인적 삶은 불운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태어나 호텔 방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까지도 이렇게 유랑하는 삶에 대해 한탄했다고 합니다. 초년에 아버지가 유랑 배우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제대로 된 가정 아님 호텔방을 유랑하며 살았는데, 말년에는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호텔방을 전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년 삶은 더욱 불행했습니다. 말년에 소뇌 퇴행성 질환과 우울증이 겹쳐 글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2번이나 이혼했고 외동딸 우나 오닐과도 절연했습니다. 사실 여기엔 유진 오닐의 책임이 큼니다. 오닐이 2번째 아내인 아그네스 볼튼과 이혼하면서 그들의 딸인 우나 오닐을 잘 돌보지 않았습다. 우나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으며 한편으로는 아버지 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채플린(아버지와 불과 1살차이)을 사랑했습니다. (계속)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툰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2022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가져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총장 엘리야 김 박사)는 지난 11일, 나성제일교회(담임 김성지 목사)에서 2022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4명(윤보배, 이정희, 박영근, 강민정), 목회학석사 5명(임정열, 안정희, 김은영, 이현옥, 김지훈), 명예 박사 5명(서사라, 김교진 외 3명) 등 총 1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2022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기독교일보

엘리아 김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1부 졸업예배는 송인 박사(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장)의 인도로 진권호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기도하고 이현옥 목사(남가주여성목사

회 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한기형 목사(미주 CBS 대표)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19-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헌금 기도는 박문석 목사(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부총회장)가 했으며, 안선신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증경회장)의 봉헌

찬양 후 강성수 목사(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2부 학위수여식은 민준기 박

사(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의 사회로 김은주 권사(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후원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재임 목사(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후원이사)가 기도했다.

이학진 박사의 학사 보고에 이어 학위 수여식은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축가를 불렀고, 이정현 목사(한기총미주지역 대표회장), 강신권 목사(LA교협 회장), 강순영 목사(청교도신앙회복부흥운동 대표), 이호우 목사(OC교협 증경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또 김인철 목사(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증경총회장),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가 졸업생들을 권면했으며, 임정열 전도사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전했다. 김동욱 기자

## 세계예수교장로회 총회, 신임 총회장에 김정도 목사 선출



김정도 목사

세계예수교장로회(WPC)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뉴욕 나이아가라 제일장로교회에서 제46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에

김정도 목사(대서양노회)를 선출했다.

필라델피아 동지교회를 담임하는 김정도 목사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소재한 웨이스신학대학 원대학교 명예 이사장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학교 종신교수에 임명됐으며 한국부 학장직을 겸하고 있다.

부총회장에는 손경호 목사(북가주노회), 장로 부총회장 유성환 장로(가주노회), 서기 황광호 목사(워싱턴노회), 부서기 이재광 목사(동남부노회), 회계 김춘경 장로(가주노회), 부회계 김원섭 장로(뉴욕노회), 총무 하요한 목사(남가주노회)가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는 목사 총대 282명, 장로총대 75명, 가족 등 모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5개 노회 45명의 목사회원이 신규 가입했다. 또한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를 비롯한 사절단이 참석해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욱 기자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6월 정기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이하 연합회)는 지난 4일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6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김경신 목사(겨렛말 남북 병행 성경 편집인)는 “가장 큰 은사는 은총입니다”(고전 13:1-13)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경신 목사는 “우리는 은사를 주신 분 보다 받은 은사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은사의 잘못된 사용이 사유화이고, 복음을 사유화 할 때 교회는 변질되고 이의 집산화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70여 년 분단된 동안 이념과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성경 번역이 필요해 참여하고 있다”며 북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 보급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진 합심기도회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 그리고 전쟁의 아픔과 참상 속에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OC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했다. 또 전세계 선교사들과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 도전장을 낸 한인 후보자를 위해 기도했다.

연합회 이사 김도영 장로는 제시카 차, 유수연, 박영선 후보 등을 소개하며 “크리스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6월 정기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가정에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해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연합회는 하반기 행사로 8월 14일(주일) 오후 6시에 8월 광복절기념 교계연합예배 및

교회 성가제를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고,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는 10월 24일(월) Los Coyote CC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전 8시에 애너하임에 위치한 에반젤리아대학교 2층 채플실

에서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합회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매월 열리는 조찬기도회 설교는 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홈페이지: [www.ockca.org](http://www.ockca.org)

김동욱 기자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최소한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mailto:inexcollisioncenter@gmail.com) **FREE ESTIMATE • TOWING**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mailto: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http://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찬수 목사 “남으신 분들에게 감사... 자책 마세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교인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다. ©영상 캡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통해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29개 교회를 분립한 후 분당우리교회에 남기로 한 성도들을 격려했다.

8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영상에서 이목사는 ‘영상 편지’를 보내기로 한 이유에 대

해 “최근에 들었던 마음 아픈 이야기 때문”이라며 분당우리교회에 남기로 한 성도들 중 비록 소수지만, 분립에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책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이목사는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아파게 한다”며 “오려려 저는, 순종해서 29개 교회와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가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기로 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 드린다”고 했다.

그는 “분당우리교회를 없애기로 결정한 거라면 모르지만, 남아 있는 분당우리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회복이 돼야 29개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목사는 “남기로 한 건 불순종, 29개 교회로 가신 건 순종”

이 구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라며 “(그것을) 이런 구도로 바꾸시면 좋겠다. ‘남으셔서 분당우리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한 팀, 또 가셔서 29개 교회를 기초부터 잘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한 또 다른

## ‘성도님들께 드리는 영상 편지’ 통해 격려

한 팀”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컨디션이 나쁘고 몸이 아프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며 “(29개 교회로) 가신 분들에 대해 계속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가신 분들 대부분 따뜻하게 밥 한끼 같이 하고 이런 건 꿈도 못꾸고, 얼굴도 생김도 모르는 상태로 보내 드린 것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이 제게 있다. 이게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남아계신 분들과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까”라는 과업이 저에게 너무 엄두가 안 나 힘이 드는 것 같다”고 했다.

이목사는 “이 두 가지 무거운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29개 교회로 가신 분들이 ‘하나님, 이

찬수 목사님 마음 다 이해하니 까 우리 때문에 미안해 하고 마음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남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셔서 남게 하신 것”이라며 “교회에서 요즘 뵈는 한 분 한 분의 남아계신 성도분들에게 너무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목사는 “(29개 교회로) 가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충성하시고, 남기로 하신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 기도하시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서 29개 교회와 분당우리교회가 모두 성숙한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에 의해 점점 부흥하고,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점점 더 흥왕해 가는 소식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25개 신학대 514명 총장·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한목소리

## 총신·합신·고신·장신·백석 등 교단과 교파 초월

2020년 376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증가

전국 25개 신학교육기관(신학대, 신학대학원, 신학교) 514명의 총장, 학장,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3일 오후 1시 30분,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주기철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신학대 총장 및 교수진이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린 것은 지난 2020년 8월 376명의 교수진이 참여한 데 이어 2년여 만이다. 당시에는 학회들이, 이번에는 각 학교의 교수회가 중심이 돼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총신대, 합신대, 고신대, 국제신대, 장신대, 백석대, 성결대, 개신대, 수원신학원, 영남신대, 칼빈대, 평택대, 서울신대, 한국침신대, 대신대 등 교단과 교파를 망라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

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6가지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첫째로 이들은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총신대, 합신대, 고신대, 국제신대, 장신대, 백석대, 성결대, 개신대, 수원신학원, 영남신대, 칼빈대, 평택대, 서울신대, 한국침신대, 대신대 등 교단과 교파를 망라했다. ©송경호 기자

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고 했다.

넷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로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

으로 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 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라고 했다.

여섯째로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대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 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매를,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헤민병원  
헤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 검진비용

~~\$950~~ **\$350** (\$100불 할인예약증)  
(환율변동)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강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 中 당국, 성도 결혼식 중단시키고 신랑·신부 구금

### 예식 장소에 압력 넣고 교인들에게 참석 불가 통보하기도

중국 당국이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의 결혼식을 중단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두 사람에 대한 성경적 책임을 다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는 최근 “장치양과 샤오웨는 중국에서 5월 21일 결혼식을 준비한 수천 명의 다른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바로 청두시 (중국 당국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라는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부부가 되었다는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청두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결혼식을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풀려난 것으로 끝이 났다”고 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

(Hyun Sook Foley)에 의하면, 그 결혼식과 관련해 당국의 압력을 받은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녀는 “결혼식 장소로 예정됐던 호텔까지도 압력을 받아 예식을 취소해야 했다. 이른비언약교회 리잉창(Li Yingqiang) 장로, 우우칭(Wu Wucheng) 목사, 다이치차오(Dai Zhichao)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로부터 결혼식 참석을 위해 외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혼식 진행을 준비하던 후신롱(Hu Xinrong) 자매는 고속철도역에서 다이(Dayi) 지방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해야 했다. 심지어 경찰서에 구금된 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면회를 갔던 쉐빙(Shen Bing) 형제는 약 10명의 보안요원에게 밀착 감시를 당했고, 결국 두 사람이 석방된 뒤에 구금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성도 장치양과 샤오웨는 지난 5월 21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한국VOM은 “이번에 청두시 당국이 결혼식을 강제로 취소한 사건은, 2018년 12월 9일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담임목사와 1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상대로 자행해 온 일련의 방해와 체포 및 수사 행위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것”이라며 “왕

이 목사는 2019년 12월 30일 청두중급인민법원에서 ‘국가권력 전복 선동 및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당국이 결혼식을 취소한 후에도 이 두 사람과 교회 성도들은 함께 결혼식을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5월 24일 결혼하기 위해 청두에 있는 다른 예식장을 예약했지만, 이 결혼식장 역시 경찰의 압력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원장 근처 다른 예식장을 준비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5월 24일 오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록 많은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비언약교회는 이 신랑과 신부에게 성경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감시 때문에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다이치차오 목사와 리잉창 장로는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게이핑 집사와 아내인 리빙은 증인으로 참석해 결혼증명서에 서명한 후, 이를 교회를 대표해 신랑과 신부에게 전달했다. 교회와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16세기 우크라이나 수도원, 러시아군 포격으로 불타”



스비아토히르스크수도원. ©우크라이나월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16세기에 지어진 우크라이나 수도원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스비아토히르스크에 소재한 수도원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많은 기념물과 문화, 유적지를 파괴했다”며 “이것(수도원 파괴)은 러시아가 유네스코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러시아의 유네스코 회원국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 수도원은 우크라이나 독립동방정교회 소속 스비아토히르스크 라브라로 16세기 건축물이며, 현재 러시아가 점령에 집중하고 있는 도네츠크 동부의 러시아군 진지 근처에 있다.

가장 먼저 화재 소식을 전한 우크라이나 기자 아가사 고르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라브라의 역

사는 1천5백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의 수도원 포격은 2번째로, 이는 러시아의 야만스러움의 또 다른 행위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고르스키 기사는 지난 3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16세기 수도원을 폭격했다. 이곳에는 성직자와 어린이 200여 명을 포함해 피란민 520명이 은신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곳은 자연에 둘러싸인 수도원으로 군사적인 장소가 아니”는 글과 함께, 수도원 내부에서 은신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 등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타

스통신을 통해 “우크라이나 제79공습여단이 퇴각하면서 목조 수도원에 불을 질렀다”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불을 낸 뒤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는 시도로베 마을로 빠르게 퇴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유혈 충돌이 시작된 후, 다른 여러 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5명의 성직자가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정교회는 키예프 당국에 성직자와 수도원에 대한 안전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며, 내전이 ‘종교적 차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려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일련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 지하숙소복원과 북녘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드온 동족선교**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코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인생고난 해결 위한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1-6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기대가 얼마나 간절하시는지 크셨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세대만 우주 공간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옛세대 흠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후에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 땅 아래 물속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불행하게도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서 이성을 잃고 범죄하여 결국 영적 소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인생고(人生苦)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오랜 세월 수종들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여 자신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천사와 패거리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방시키셨고 그들이 이 죄악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꾀임에 빠진 이브와 그 남편 아담의 실족으로 인해 인류의 죄는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영생할 수 있었던 자격을 박탈당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값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헤치며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역을 해야 연명(延命)할 수 있으며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창3장).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 양으로 그들의 죄 값을 대신하여 죽게하시고 이 구속의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받아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값으로 인한 저주와 지옥 형벌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에는 피조물이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파송시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예언하게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내용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을

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거하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전해지는 핵심적 구원의 교리와 진리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하나님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의지나 결단으로 천만번 다짐을 하고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 목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 값으로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인생고난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고난 덕분입니다.

2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결하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700년 후에 세상에 동정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체적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분의 생애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로 멸시당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에 의한 고통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지를 직접 겪어 아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슬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대신 벌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가 자기 죄 값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했다고 오해할 것이라는 것까지 700년 전에 예언으로 미리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기 바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지은 죄 값으로 지옥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을 대신 보내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1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에 이미 발 들어 놓을 틈이 없었기에 그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그 믿음이 참으로 가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는 그 자체를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 어려움 속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마가복음 2:5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얻게 된 것은 그 죄 값으로 인함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으니 중풍병으로 더 괴로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듣기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지 참으로 참람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중략)...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막2:8-10)” 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타락한 인간인 자기 본성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불행의 불씨가 되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회개시키신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지옥 형벌의 저주스러운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생기와 소망 넘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생활전폭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22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례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원리, 목회학(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8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학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온라인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lobal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신학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 112/admin.kor@itsla.edu



강준민 칼럼

# 기다리면 알게 됩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사 30:18).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고전 15:6).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은 120명뿐이었습니다(행 1:15).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면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기다림의 지혜를 배

웁니다.

첫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제가 기다림을 강조할 때, 가끔 제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에도 원리가 있고 기다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마 7:7; 요 14:13). 반면에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약 4:2).

둘째,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빌 2:13).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나온 사람들에게 “네 믿음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8:13).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한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 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는 작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롬 4:18). 우리

신앙은 환경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때 빛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노쇠했고, 사라의 몸은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리며 기다리십시오.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릴 때 술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바로와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위해 바로의 꿈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을 위해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너무 서둘러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급히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마 25:26). 그 책망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마 25:26).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십니다.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농부를 예로 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에 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약 5:7). 농부는 씨앗을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다림은 수동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엄마의 자궁에 잉태해 있는 어린아이는 기다리는 중에 자랍니다. 농부가 심은 씨앗은 기다리는 중에 자랍니다. 아픈 상처는 기다리는 중에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다리는 중에 응답됩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농부처럼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 연재 '꿇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그의 별명이 '활족'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의 인상은 그만큼 아무 짓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

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전용식의 인상에 잔뜩 긴장해서는 우리가 잡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굴을 찾아왔구나 싶어 후회하고 있을 즈음에, 그의 아내가 나섰다.

“손님을 집에 들였으면 이야기기도 나누고 대접을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를 채근하는 아내의 소리에 더 긴장이 됐다. 안 그래도 인상이 사나워서 잔뜩 주눅이 들어 있는데, 괜히 건드려서 성질을 부리면 큰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의외였다.

“처음 보는 사이끼리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아내에게 대꾸하더니 이내 우리를 향해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니 저는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지내다 가십시오” 하고 깎듯이 예의를 갖춰 말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우리는 안심하며 그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을 수 있었다.

그는 금광산사업소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요즘 자주 정전이 되는데다 폭약이 없어서 광부들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낮잠만 자는

형편이라고 광산 사정을 설명했다. 막상 말을 맞추고 보니 전용식은 인상과 달리 마음씨 좋은 옆집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그러자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하루 종일 겨울 길을 걸은 피곤이 덜쳐 왔다. 그때 같이 걸었던 강씨가 얼굴을 방바닥에 처박더니만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를 본 진씨가 강씨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너 지금 뭐 하나?”고 물었고, 강씨는 아무렇지 않게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했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탄로 난 게 아닌가 긴장하고 있는

데, 진씨가 주책없이 “야 인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집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냐. 당장 일어나” 하면서 강씨를 핀잔했다. 진씨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고 아예 대놓고 떠든 것이었다.

이를 본 전용식은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내게 귓속말로 물었다.

“자네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한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순순히 그렇다고 하자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제48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이번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서의 제48회 순복음세계선교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 3년 만에 열리게 되었기에 모임과 만남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올 해는 원주민 선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원주민선교사들 은 따로 한 주간 더 모임을 갖 게 되고, 저는 먼저 돌아오기 에 오히려 찾아오는 선교사님 들과의 만남은 더 간절했고 반 가왔습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 출발하 여 대전 현충원에서 장모님의 합장 안치식을 마치고 돌아온 늦은 오후부터 반가운 만남은 계속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희 교회를 방문했었던 중남미 총회, 아프리카 총회, 아세안 총회, A국 총회의 선교사님들 은 미국에서 교회와 성도님들 을 통해 받은 사랑을 추억하

며 늘 얘기하고 있다며 감사 의 안부 인사들을 전했습니 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고 소중한 것처럼, 팬데 믹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 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 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간 증들은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난민들 을 섬기는 우크라이나의 김용 만 선교사님, 중동 요르단에 서 선교센터를 건축할 수 있 는 부지를 기적같이 매입한 유학중 선교사님, 대면이 불가 능한 상황 속에서 인도차이나 5개국 선교사대회를 은혜롭 게 치룬 김남균 선교사님, 쿠 데타의 어려움을 이기며 건축 을 하고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김병천 선교사님, 비자가 나오 지 않아 선교지에 입국하지 못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A 국과 인도의 선교사님들, 그 리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 던 상황으로 인한 영적인 도전 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속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눌 때 는 성령님의 터치와 선교사님 들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가득 했습니다. 무엇보다 만나는 모 든 분들이 저희 교회 중보기도 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하며 더 욱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공개하 지 않고 계속 해온 선교대회 때 한 끼 식사로 섬기는 일을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지 여 의도교회 선교국 사정으로 전 체 6백 명이 넘는 선교사들에 게 공지를 하고 목요일 점심, 각 2만원씩 나누어드려 자유 롭게 한 끼 식사를 사서 드시 도록 했습니다. 작은 액수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저 희 교회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믿 음의 소원은 더 커지게 되었 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힘들여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 를 복되게 했습니까? 노아 자 신의 8식구가 구원을 받는 도 구가 되었습니다. 축복은 어떤 것이라도 모아 놓기만 하고 사 용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지 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 하면 구원과 영광의 도구가 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일 저 녁예배 설교와 토요일 국민비 전 클럽 조찬 모임까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 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5대 양 6대주에서 사역하시는 선 교사님들을 섬긴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 혜가 더욱 넘쳐나는 성도님 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 드 립니다.

###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책 잠언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생활한 경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부터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순간순간 부딪쳐오는 문제 들을 헤쳐 가며 살아갑니다. 그 럼 이처럼 우리가 매일 경험하 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 고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배 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책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찾 아 볼수 있는 지혜란 의미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분히 복합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 경의 지혜문헌을 중심으로 “지혜

(호크마)” 라는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최소한 여섯 개의 요소(지 식, 상상력, 훈련, 경건, 질서, 도 덕적 가르침)가 지혜의 범위에 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와같은 여섯가지 이상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크 리스천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도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구약 성경에 서 가장 실제적인 책인데 그 이 유는 잠언이 매일의 생활에서 부 딴치는 삶의 여러 측면들을 위 한 지혜(문자적으로는, ‘능숙하 고 기술적인 삶’)를 가르치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잠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어리석 음, 교만과 겸손, 공의와 보복, 게 으름과 일, 가난과 부, 친구와 이 웃, 사람과 정육, 분노와 다툼, 주 인과 종, 삶과 죽음과 같은 중요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한 주제를 다루는 영감 있는 말 씀입니다.

이 주제들은 이론적이지 않고 실제적인데, 이것들은 쉽게 암기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의 모든 면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입니 다. 무엇보다 잠언 하나를 읽는 데는 겨우 수초밖에 걸리지 않 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는 일생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 다. 그리고 잠언의 열쇠가 되는 말은 지혜(기술적으로 숨겨 있 게 사는 능력)입니다.

주된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상식과 경건한 삶의 시각을 인상적이고 기억하기 쉽 게 제공하기 위해, 시, 비유, 간 절한 질문, 짧은 이야기, 그리고 지혜로운 격언들을 잘 배합하여 사용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무엇보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

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서 “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은 하나님의 의, 위엄, 그리고 능 령을 경탄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며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 기 에 힘써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잠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 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고 있었던 것입니다.(잠언 1:7)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 며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무엇 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앞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 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 를 통해, 그분의 뜻을 살피며 사 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성금 비보험사 Rate 올 보험회사,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환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http://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중차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골루콘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중차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100% 정품  
 Made in U.S.A.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당뇨 당뇨병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산화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 실험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칼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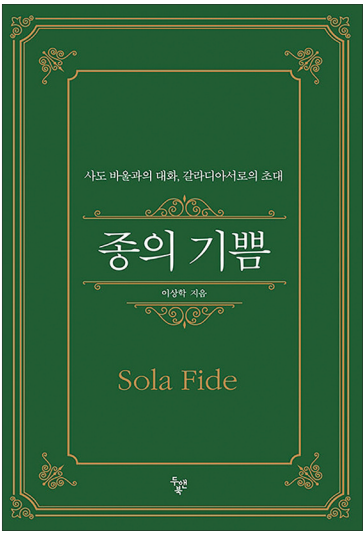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의 <종의 기쁨>

사도 바울과의 대화, 갈라디아서로의 초대



김동호 저  
규장 | 248쪽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원천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가 신간 <종의 기쁨>(출판사 두앤북)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현주소와 미래를 밝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파고들어가고자 했던 사도의 통찰과 영감이 한국교회와 성도 한 사람에게 스며들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바울은 인간에게는 자유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발산하는 즐거움보다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자유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다.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중에 느끼는 즐거움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의 열락이다. 그것이 바로 '종의 기쁨'이다”라고 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복음의 일부 부분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의 생이 진정으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생을 내

게 선물로 주셨다는 은혜의식이 가장 먼저,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설교자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인 설교자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은 말씀의 위대함과 변질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죄의 권세는 내 동정도 없이 나의 심령 깊숙이 치고 들어와서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몰아간다. 멋대로 유린하다가 어느 순간 나를 집어던지고 바람처럼 사라진다. 나는 이것을 '내 안의 들짐승'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의 글귀나 명령 조항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되게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꿈틀꿈틀 살아역사하는 '영'이다. 글이 아니라 글을 말씀한 영이 말씀을 진리로 만들어준다.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담겨 있는 영의 의미를 깨달아 지켜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책은 이어 “내 안에서 전쟁을 끝내고 줄타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사도 바울

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감격스럽게 갖게 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기쁨으로 배워가게 된다”라고 했다.

그는 “온전한 믿음은 그 일을 행하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 믿음이라는 신조에 대한 고백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믿음은 하나님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이 하나님을 싸고 있는 보자기를 풀어 내용이고 보물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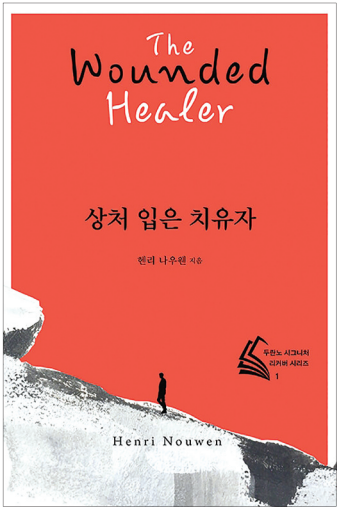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열매에는 '의지'가 수반된다.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에 의해 병들었기 때문이다. 병든 의지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첫 번째로 중요하며 다른 여덟 가지 열매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나요? 속앓이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인생과 결별하고 오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여 어떤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면 위대한 십자가의 흔적을 좇아가고 있다는 증표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속에서 저는 새로 지어졌고 새로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이에게 비쳐질 모습에 대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새로 지어지는 변화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상학 목사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조직신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담임목사로 포항제일교회를 섬겼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새문안교회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담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종의 기쁨>, <비움>,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6월, 작가들의 말말말②]



◆ 헨리 나우웬(저자), 최원준(옮긴이) - 상처 입은 치유자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아픈게 하는 태도가 있다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고, 격려의 말을 해 주며, 용서하며, 안아 주며, 자신의 손을 꼭 잡아 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주거나 더 이상 도움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그들의 곤경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상황에 개입해야 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인격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 입고 심지어는

파멸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 마이클 하이저(저자), 김태형(옮긴이) - 건너 뛰지 않고 성경 읽기

이스라엘과 그 이웃 민족들 사이에 존재했던 문화적 공감대는 하나님 입장에서 적극 사용하실 만한 지혜로운 신학적 전술이었다. 그래서 만약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신학이 차별성을 드러낼 때, 게다가 그것이 제법 극적이고 눈에 띄는 대비점을 보여 준다면, 그 사실을 감지한 고대의 이교도 독자라면 비명을 지를 만큼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모세는 고대 문화의 유사 설

화들과 구분되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는 다른 설화에서처럼 특별히 선택 받은 영웅이 되어 승승장구하지 않는다. 모세는 선택 받은 영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신기원으로,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높임을 받은 인물이다. 세속 왕국들의 설화와는 정반대로,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 개인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한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사람들을 죄책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다. 희생 제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시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불충분한 제사 제도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본성상 어떠한 분이신

지를 깨닫게 하는 주요 방편이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완전한 희생만이 오직 우리의 도덕적 죄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동석 유니버스, <범죄도시 2> (下)

# 영화 <범죄도시 2>,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생각할 만한 점

선과 정의 향한 대중의 열망 반영하는 범죄 수사물 질서와 안정, 공권력 순복 추구하는 성격 반영 결과 각 슈퍼히어로 영화들, 대중 열망 모두 충족엔 경제 교회와 사회에서 삶의 윤리적 모범 찾지 못한 결과

◆범죄 수사물의 효용: 정의는 더 숭고하게, 범죄는 더 참혹하게 각 인시키는 범죄 수사물

영화는 운동하는 이미지를 통해 관객에게 사고의 각성을 강제한다. 소설도 동일한 기능을 갖지만, 활자는 이미지가 지닌 직관적 접근성을 따라잡지 못한다. 특히 그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활동적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가 그의 저서 <시네마1: 운동-이미지>에서 밝힌 것처럼 영화 속 이미지의 흐름은 관객 자신의 의식 혹은 인격의 시간적 지속을 부지불식간에 깨우치게 해준다.

의식의 시간성은 곧 우리 삶을 움직이고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층적인 구성 조건이다. 그래서 시간성에 대한 깨달음은 곧 우리 삶의 현실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한 편의 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순간, 관객의 미학적 관심은 그 앞에서 전면적으로 열리게 된다.

영화라는 것이 현실을 스크린에 재구성한 구상물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현실적 제약 없이 자신의 미학적 관심을 눈앞에 펼쳐진 역동적 이미지의 향연에 순전하게 쏟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화의 이미지에 몰입된 심리 상태의 장점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현상들 이상의 것들을 사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여기서 현실에서의 현상들 '이상'이라는 것은 체험되는 현상에 부차적으로 추가되는 어떤 내용을 말한다기보다, 그 체험이 주는 보다 심층적인 정감을 말한다. 영화 속 이미지가 현실보다 훨씬 더 대단하거나 혹은 훨씬 더 처참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학적 관심이 한껏 열려

있고, 그 가운데서 삶의 시간적 본성을 예민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스크린 속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의미가 현실에서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정감을 수반한 채 사유되는 것이다.

범죄 수사물은 영화만이 지닌 이 고유의 강점을 실제 사회적 효용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로 제작된다. 관객들이 범죄 행위에 수반되는 참혹함을 진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법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를 제작하는 이들은 대중의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둔다. 하지만 미디어 산업 전체, 더 나아가 대중문화 영역 전반이라는 큰 차원에서 볼 때 범죄 수사물은 범죄 행위가 범죄자 자신과 주변인들, 그리고 피해자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한 강력한 교육효과를 갖는다.

물론 범죄 수사물의 부작용도 있다. 특히 자극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범죄자들의 현실을 과도하게 각색, 미화한 작품들이 그렇다.

이런 작품들은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모방범죄의 교보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 수사물을 제작하는 이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 수사물 본연의 문제는 아니다.

### ◆범죄 수사물과 윤리: 성경의 숭고한 계명을 받들도록 예비하는 윤리적 삶의 태도

범죄자를 옹호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경찰과 수사기관을 옹호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서사가 진행되는 범죄 수사물의 경우 대부분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과 만족은 절대 오래 유지될 수 없으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의 일생을 결국 파탄으로 몰아넣는다는 교훈



범죄자를 옹호하는 열혈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의 일대기, <범죄도시 2>.

을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의 범죄 수사극 대부분은 현실 반영형 서사 구조를 갖는다. 할리우드 범죄 영화의 전형이 수사관들과 범죄자들 사이 고도화된 두뇌싸움에 집중하는 게임형 서사구조를 갖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질서, 안정, 공권력에의 순복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이런 한국형 범죄수사극이 지닌 강점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서사도 단순하고, 캐릭터도 단순하다. 하지만 그 단순함의 장점을 극대화해 정의의 승리, 악의 패망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기초적인 양심과 윤리적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은 사회적 안정과 효용을 위해서만 아니라 복음의 확산과 기독교적 가치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성경의 복음은 인간의 죄성과 범죄행위에 대해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는 것이 성경의 확정적인 입장이다.

애초 성경의 가르침 안에는 '필요악'조차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출애굽 당시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내용이 나오지만, 그렇다 해서 바로의 완악함이 선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완악함이 바로 자신의 삶과 영혼에는 비극을 초래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죄성과 범죄가 하나님의 경륜 전체에서 일정한 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 개개인 차원에서는 굳이 그런 기능을 스스로 떠맡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굳이 악역을 맡기 위해 스스로의 삶과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인간의 삶은 믿음과 선행으로 채우기에도 부족할 만큼 짧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범죄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끌리는 자는 법적인 범위를 넘어선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들 역시 쉽게 저지르기 마련이다. 칸트 식으로 진단하자면 선의지 실천 훈련도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으로 연단된 이는 신앙에 관심을 갖기에 유리한데, 이는 고결하고 숭고한 법칙 혹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가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실천원리는 아니지만, 윤리 없는 신앙 또한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범죄 수사물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법적 정의와 윤리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르이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정의와

윤리 확립 요구가 절실해질 때, 대중문화계에서는 범죄수사물이 큰 주목을 받고 흥행에 성공한다.

현재 <범죄도시 2>의 흥행성공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영화관 수요가 분출된 면도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위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에 대한 정의구현 열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강하게 깃들어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정의와 선에 대한 열망이 사회 전반에 흘러 넘치는 상황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교회와 신앙인들이 대중이 가진 이런 열망을 대중문화보다 고차원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삶의 무력함을 초월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 충족 역할을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독점하고 있듯, 선과 정의 실현에 대한 대중의 열망 충족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지 못하고 범죄 수사 영화들에 전적으로 위임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교회와 사회 전체를 통해 윤리적 삶의 실천 모범을 찾지 못한 대중은 허구적으로나마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삶의 현실을 전복해버리는 범죄수사물에서 위안을 찾지 마련이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는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Richmond)에 위치하고 1967년에 창립하여 54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입니다. 4대 담임목사님의 15년이 넘는 사역 후 은퇴로 인하여 5대 담임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richmondkpc.com](http://richmondkpc.com)

### 1. 목회자 청빙 자격 조건

- 1) 소속 : 미국장로교 (PCUSA)에 소속된 분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2)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를 받은 분
- 3) 경력 :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경력자
- 4) 언어 : 한국어와 영어의 소통이 가능한 분
- 5) 신분 :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 가능하신 분

### 2. 제출서류

- 1) 이력서(PCUSA Form PIF: Personal Information Form) 양식 또는 자필 이력서
- 2)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 3) 추천서 2통(목사, 장로 추천서로 추천자의 이름과 연락처)
- 4) 목회 계획서
- 5) 신앙고백서와 목회철학
- 6) 최근 6개월 내 설교영상
- 7)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3. 제출 마감일시

2022년 6월 30일

### 4. 제출처

우편 : 청빙위원장, 서유석 (Peter Suh)  
2700 Stenwell Blvd., Richmond, VA 23236  
Email : richsuh@aol.com  
전화: (804) 852-0541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 성가대 및 찬양팀 반주자로 섬기실 분을 모십니다.

### 1. 지원자격

- 1) 성가대 및 예배 키보드 반주 동시에 가능하신 분 (코드연주 및 Key-UpDown 자유로우신 분)
- 2) 찬양팀 경험자 우대

### 2. 사역내용

- 1) 주일 1부(8시 예배), 2부(10시 45분 예배) 성가대 반주 및 찬양팀 반주
- 2) 수요일예배(추후 예정)

### 3. 필요한 서류

- 1) 이력서
- 2) 자기소개서

### 4. 보내실 곳

토랜스 참사랑교회(1432 Engracia Ave. Torrance, CA90501)  
이메일 : [medialee68@gmail.com](mailto:medialee68@gmail.com)  
홈페이지 : [thechamsarang.org](http://thechamsarang.org)  
문 의 : 562)338-9209

토랜스 참사랑교회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 제3차 8.15 광복 77주년 기념

#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HOUSTON 2022]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HOUSTON 2022]

## "오직, 복음통일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행 1:6~8)

Only, the answer is Gospel Reunification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19일(금)
- 장 소 : 휴스턴한빛장로교회(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 문 의 : 주최측: 425-775-7477, 주관교회: (713) 643-4348
- 대 상 : 한어/영어권 성도들과 청소년 2세 모두
- 참가방법 : 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선택강의 선착순으로)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통일연합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각성)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담임



(탈북구제사업)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북한농업실무)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전문인사역)  
정규재 목사  
강일교회/연변과기대



(북한현실/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학교



(북한지하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주관교회)  
정영락 목사  
한빛장로교회



(통일전략/북한통치이해)  
김요한 목사  
유니티미션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북에서 남으로)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청년비전, 스피치/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통일청년세대)  
조평세 박사  
'바로서다' 이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굼주림보다더큰목마름

☺ 이외에 탈북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을 예정이며, 강의는 covid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한빛장로교회 협력: 휴스턴교협 협찬: 미주기독교일보